

별명칭계의 화제

태양에너지 저장 방법

지구상에 존재하는 에너지중에서 가장 깨끗한 에너지가 태양에너지인데 이 태양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널리 쓰이기만 한다면 여러가지 공해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태양에너지는 또한 공해문제뿐만 아니라 온갖 자원문제까지 해결해 주는데, 태양빛은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한 무궁무진하게 널려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태양에너지의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30여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것의 활용과 저장방법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태양열을 흡수, 저장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온갖 투자를 다 해왔는데 이제 그 방법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써온 광전지는 태양열을 흡수하여 전기로 변환시킬뿐 이를 저장하지 못했는데 미국 프린스턴대학의 톰슨 교수와 대학원 학생인 버물렌 양이 태양열 저장을 위한 새로운 물질을 찾아낸 것이다.

이 새로운 물질은 식물이 분자의 단계에서 에너지를 흡수, 저장, 방출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무기물질인데 지르코늄 포스포네이트와 비올로젠 할로겐화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태양열을 저장한 후에 다시 에너지로 추출해내는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앞으로 이 실험이 성공해서 태양에너지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인류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생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바르는 장갑

페인트칠이나 기타 손이 더러워지는 일을 할 때는 흔히 장갑을 끼게 되는데 이 경우 손 동작이 둔해지고 한번 쓴 장갑은 빨아서 쓰던가 버리던가 해야 한다.

그런데 화장품처럼 손에 바르면 얇은 막이 생겨 장갑을 착용한 효과가 생기는 신제품이 나와 여러가지로 편리하게 되었다.

후지제약이 1년동안 연구에 매달려 내놓은 <논 글로브>가 바로 그것인데 현재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이 제품은 페인트나 기름때같은 석유화학제품과는 반응하지 않는 대신 물에 잘 녹는 특성을 가진 계면활성제의 기능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작업을 마치고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벗겨진다.

작업하기 1분 전에 바르면 되는 이 제품은 빨리 마르고 끈적거리지 않으며 좋은 향기가 나도록 되어 있고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

원래 이 제품은 미국에서 먼저 개발되었는데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완전 건조가 안돼 끈적거리는 단점이 있었다.

후지제약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개발한 <논 글로브>는 완전 건조상태에서 15시간 동

안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역수출한다고 한다.

청결함을 나타내기 위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이 신제품은 40번쯤 사용할 수 있는 30mg들이 가정용이 7천원 정도인데 당초 연간 1천2백겔런쯤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3천겔런가량 팔릴 예정이어서 후지제약은 절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고전음악 감상한 맛있는 국수

음식을 먹을 때 고전음악이나 새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음식도 맛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다. 특히 고급음식점에서는 거의 모두 고전음악을 틀어 놓는다.

이렇게 고전음악을 이용해서 음식맛을 좋게 만드는 것은 음식을 먹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사람에게 먹히는 음식에게 음악을 들려주어 색다른 맛을 유발한 회사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타카사코 쇼쿠힌이라는 국수회사가 바로 그 회사인데 국수의 건조와 숙성과정에 고전음악을 들려주면 국수맛이 훨씬 좋아진다고 한다.

일본에는 이미 베토벤 음악을 감상한 빵과 모차르트 음악으로 숙성시킨 술 등 고전음악으로 맛을 개선한 식품들이 여러 종류가 나와 있다.

이 맛있는 국수를 개발한 타카사코 회사측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일단 먹어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보통 국수보다 맛있다고 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맛있는 국수는 공장에 매일 4시간씩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와 함께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베토벤의 음악만 감상한 사과, 모차르트 전용 소고기, 뼈꾸기 소리로 단련된 떡 등 희안

하고 재미있는 식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해볼만한 제품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음식맛을 떠나서 특이한 제품과 독특한 맛에 민감한 현대인에게 획기적인 상품이기 때문이다.

옷감용 컬러 프린터

컴퓨터 옆에서 다양한 인쇄를 해주는 인쇄기는 거의 흑백이고 전문가용으로 컬러 인쇄기가 사용되고 있는데 컬러 인쇄기도 많은 연구와 투자를 거쳐 만들어진 첨단 제품이다.

그러나 이런 첨단 제품을 능가하는 최첨단 인쇄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옷감용 컬러 프린터.

이 인쇄기는 종이에 인쇄를 하듯 넥타이나 티셔츠 등 여러가지 옷감에 자유자재로 색깔과 모양을 넣어 인쇄할 수 있다.

미국의 캐논사가 이 인쇄기의 개발을 담당한 주역인데, 보통 공장에서 쓰이는 인쇄용판이 필요없기 때문에 잉크와 노동력 등이 훨씬 적게 들어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준다고 한다.

이 인쇄기는 또 빨강, 노랑, 파랑, 검정색 물방울을 분리하는 미세한 노즐셋트를 갖추고 있어서 기존의 옷감 인쇄시에 표현하지 못했던 컬러까지 모두 넣을 수가 있어서 새로운 옷감을 구경할 수 있게 되었다.

무게가 2톤이 넘는 단점이 있고 대량으로 옷감을 생산하려면 또다른 개발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성과가 알려지면서 관련업계에 개발 경쟁이 일고 있어서 예상치 못한 첨단 인쇄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시스템의 독점권은 캐논과 제휴한 일본의 가네보사가 가지고 있다. ♣

〈柳泰洙 記〉